

전주시, 사회혁신 거점공간 조성

행정안전부 조성사업 선정 · 5년간 100억원 지원 사회혁신캠퍼스 · 서노송예술촌 2개 신규 공간조성

전주시가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풀어나가는 정부의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향후 5년간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정부가 스페인 소도시인 빌바오의 사회혁신파크 실험 모델을 적용,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지역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은 전주시와 춘천시 두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원도심 내 사회혁

신캠퍼스와 서노송예술촌 내 리빙랩 공간 등 2개 공간을 조성, 기존에 마련된 전주시혁신센터와 구도심 내 소규모 혁신공간을 지원함으로써 구도심 전체에 그물망처럼 사회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회혁신캠퍼스의 경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주민들이 혁신적으로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배이스캠프로, △실험·창작공간 △사회혁신 관련 단체들의 입주·협업·공유공간 △도시혁신 아카데미방 공간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서노송예술촌 리빙랩 공간의 경우, 선미촌 기능전환과 여성인력 및 자활 등 여성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혁

신기지로, 시는 이곳에 △여성인력 복합문화공간 △여성창작공간 △공동판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서노송예술촌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만드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시는 이달 말부터 공간 기본설계 및 조성방안 관련 행정안전부, 민관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후, 오는 8월부터는 도시혁신, 여성인력 등을 주제로 시민 대상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주민주도와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도시재생, 청년, 문화예술,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기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공유, 논의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행정안전부와 민관협의회 참여자들과 함께 사업평가 및 성과지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이 계획 발표 직후,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의회를 구성, 7차례 회의와 실무 형태의 워킹그룹을 운영해 등 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최종 선정됐다.

양도식 시 사회경제정책지원단장은 "각각의 분야에서 사회변화를 위해 약진해오던 다양한 단체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협력과 협업의 힘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사회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주를 넘어 전국의 사회혁신활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주민센터 이용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전주시, 혁신동 신설 행정구역개편 기존 효자4동, 효자 4·5동으로 분동

오는 7월 부터는 기존 전주시 효자4동이 이동교에서 전주대 신정문까지 이어지는 서원로를 중심으로 효자4동과 효자5동으로 나뉘고 덕진구에는 혁신동이 신설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그간 인구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민원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어온 효자4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효자4동을 4동과 5동으로 분동하고 혁신동을 신설,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그간 2개구 33개동으로 운영해온 행정조직을 개편하게 된 것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후 효자4동이 인구 7만여 명을 소화하면서 민원업무가 폭주해 분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또, 혁신도시의 경우 그간 완산

구 효자4동과 중동, 덕진구 장동과 만성동으로 나뉘어 있어 행정구역 일원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주민센터가 2개 늘어나 총 35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효자4동의 경우 운주리교회 옆 완산구 천장로 180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고, 효자5동은 현 효자4동주민센터를 사용하게 된다. 또, 혁신동의 경우, 본 주민센터 조성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덕진구 오공로 43~24 하나빌딩에 임시개소하고 민원인을 맞는다.

특히, 시는 기존의 효자4동이 분동되면서 현 주민센터는 효자5동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신설되는 효자4동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졸대비반 추가운영

전주시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돕기로 했다.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8월 8일 치러지는 '2018년도 2차 검정고시 시험'에 대비해 6주간의 교육프로그램인 '스마트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교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대학생 멘토 교사들이 과목별로 지도해주는 공부방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센터는 지난 15일 스마트교실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검정고시 지원을 돕고자 자원한 멘토단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센터는 매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고졸 검정고시 교육반을 운영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중졸 대비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스마트교실을 위해 선정된 멘토선생님들이 열심을 내주어서 아이들이 모두 합격하길 바란다"며 "시험에 응시하는 청소년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며 그외, 기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콤포트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제60회 전주시민의 날 및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2주년 기념행사가 단오날인 18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렸다.

66만 전주시민 자긍심·애향심 'UP'

'전주시민의 날 ·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2주년' 열려

전주정신 우수성 재확인... 전주시민의 장 등 시상식도 병행

제60회 전주시민의 날 및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2주년 기념행사가 단오날인 18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주요내빈과 관내 기관·단체장, 전주정신정립위원회와 일반시민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렸다.

전주시는 이날 행사를 66만 전주시민의 화합단결과 전주정신을 재확인

하는 자리로 제60돌을 맞는 '전주시민의 날' 기념식과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2주년 행사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 지역사 회발전엔 헌신한 10명의 시민에게 각각 전주시민의 장(5명)과 모범시민상(5명)이 수여됐다.

영예의 2018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는 효열장의 임은애씨(51, 여), 교육장의 강석곤씨(50, 남), 문화장의 조종익씨(68, 남), 공익장의 정병준씨(81, 남), 체육장의 강종구씨(62, 남)이다. 또, 이용운(호성동), 한상현(덕진동), 김성국(노송동) 씨 등 5명은 모범시민상을 받았다.

양영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전주시민의 날은 우리 민족에게 의미 있는 세시풍속인 단오와 전주시민을 한마음으로 엮어내는 자리이다"며 "제60돌을 맞는 전주시민의 날과 전주정신 선포 2주년 기념행사가 전주시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전주정신의 우수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검거... 최소 3명 사망

경찰이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화재 방화범을 검거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군산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장모(48)씨 등 3명이 숨지고, 30명이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인원 중 6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점 건물 내부 28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씨는 인화물질을 주점 입구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입구에 불이 난 탓에 주점 안에 있던 장씨 등은 재빠러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경찰은 이씨가 주점 종업원과 다툰 뒤 건물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이씨를 추적해 붙잡았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시보건소, 피내용 BCG 예방접종 재개

수급 불안정으로 중단됐던 신생아 대상 피내용 BCG(결핵) 예방접종이 재개된다.

전주시보건소는 그간 수급이 불안정했던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이 안정화에 접어들어 만큼 접종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들은 이날부터 BCG 예방접종을 보건소뿐 아니라, 전주시역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BCG 백신 예방접종이 재개되면서 지

난해 10월부터 민간병원에서 임시로 시행했던 경피용 BCG 무료예방접종은 지난 15일자로 종료, 경피용 BCG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받아야 한다.

피내용 BCG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4주 이내 신생아로, 시 보건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방접종을 미리 예약을 받아 실시하고 접종일자는 주5일(월·화·화: 완산점종실 / 수: 평화보건지소/목·금: 덕진점종실) 오전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